

책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름여행

길 나서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 국내외 여행안내서

바야흐로 바캉스철이 돌아왔다. 7월 초부터 한달간 사람들은 몰막고 산 좋은 곳이면 어디든 가지 않고 찾아가 쉬터를 마련할 것이다. 교통체증이나 과소비니 해서 여행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분수에 맞는 일상의 벗어남이라면 잃는 것보다는 소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자연에 맡겨 휴식을 취하게 하는 여행은 소중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현대인에게 쉬는 시간마저도 편치는 않게 마련이다. 어디로 떠나야 할지,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의 목적을 거둘 방법은 없는지, 되도록이면 고생을 덜어야 할텐데 등등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은커녕 짜증이 우선 자리잡고 있다. 생활의 윤택함으로 너도나도 나서는 여행길은 어쩌면 자리만 옮긴 일상일지도 모른다. 그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나 되는 것처럼 짐을 꾸리는 여행객들의 손에 한권 정도씩은 들려지는 여행 안내도서. 이미 가보았던 경험이 있거나, 그곳 사정에 밝은 동행이나 안내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안내책자만큼 믿을만한 '친구'는 따로 없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점을 들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건 바로 그래서다.

시리즈·에세이·배낭족용이 대중 이뤘

현재 서점의 진열대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도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것. '물 건너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슨 특권이나 일생의 꿈으로 여겨지던 시절과는 달리, 약간의 수고료음만으로도 가능해진 때문이다. 이런 해외여행 안내도서들은 크게 도시별 국가별로 구성된 시리즈물과 배낭족들을 위한 것, 그리고 안내책자의 기본틀을 벗어나 필자의 경험담으로 꾸며진 에세이류로 구분된다.

신문사와 대형출판사들이 펴낸 시리즈물로는 '월드 투어 가이드'(동아출판사) '세계를 간다'(중앙일보사) '지구촌 배낭여행 아시아 14개국'(동아일보사) '벌리츠 여행 안내서'(웅진) 등이 선보이고 있는데, 적게는 5~6권에서 많게는 30여권까지 출판돼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국가별과 도시별 지역별로 구분된 이 시리즈물들은 대부분 편집내용에서는 큰 변별점이 없다. 그 나라나 도시의 약사로 시작돼 기후와 복장, 관광안내소, 교통편과 요금, 숙박시설, 볼만한 명소, 쇼핑장소로 적절한 곳 등을 소개하고 있고 컬러화보나 부분적인 약도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서울 교보문고의 여행안내서 코너.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굳이 특색있는 점을 들라면, '월드 투어 가이드'의 경우, 여행사와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풍속과 시차·전화우편 이용요령·긴급사태시 대책 등 소소한 항목을 두었다는 것이라든가, 가장 분량이 많은 전 35권의 '세계를 간다'는 일본의 여행도서 출판사인 다이아몬드 북사와 계약을 맺어 보다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인다는 점, '지구촌 배낭여행...'은 아시아 14개국의 여행명소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부록으로 항공권 싸게 사는 법, 유스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민박) 이용을 통해 여비를 줄이는 요령들을 알려준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교적 최근 출판된 웅진의 '벌리츠...'는 영국의 벌리츠사가 세계 1백여 개 국가와 도시에 관해 펴낸 여행안내서의 한글판으로, 유명사진작가들의 사진이 곁들여져 있는데, 이 시리즈는 무엇보다 손바닥 크기만한 판형으로 제작돼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보인다.

취재망도 있고, 연재되었던 기사를 모아 출간하면 그만인 신문사와 조직이 방대한 대형출판사는 아니지만, 이런 시리즈물 출판에 동참하는 출판사들도 여럿 된다. 예를 들어 이동도서를 출판해온 민서출판사는 현재 10권의 '해외여행 가이드'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동경·런던·파리편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해외여행의 정보를 담은 안내서 가운데는 시리즈가 아닌 단행본도 여러권된다. '홀로가는 세계일주 배낭여행기'(윤종환, 오픈마인드) 'Let's go Europe'(배재항공여행사, 그린비출판사) '33개 도시 유럽'(김성호, 트래블월드) '이호혁 세계기행'(삼성출판사) 등 3,40권에 이르는데, 햇빛출판사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3천원의 인도여행' '이집트·터키를 가다' 등의 단행본을 계속 출판하고 있다.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오는 여행안내서는 대개가 시리즈물의 편집과 비교해 상이점을 갖는데, 시리즈가 요약된 정보전달 기능에 충실하다면, 단행본은 여행 체험기 형식의 '읽는 여행서'로 구분된다. 이런 에세이류의 여행서로는 '인도기행'(강성경, 민음사) '전숙희의 소련기행'(삼성출판사) '법정인도기행'(샘터) '갠지스 강물 따라'(김양식, 인문당)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책들 속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책들을 들자면 '비즈니스 해외여행'(대한무역진흥공사, 매일경제신문사)과 '해외여행과 관광'(이준상, 제성) '만화로 익히는 안전한 해외여행'(호산문화). 비즈니스상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담거나, 해외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건강문제, 그리고 외국여행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한 이 책들은 세분화된 여행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외국인들이 보면 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여행으로 만족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역시 여행안내서는 풍족하다. 전국의 국·도립공원이나 명산, 폭포와 계곡, 해수욕장, 온천, 사찰, 문화유적지, 박물관·기념관들을 소개한 책들 또한 시리즈 형식을 취한 것들과 단행본으로 대별된다. 원색화보를 곁들여 그 고장의 민속, 별미, 특산물, 전설, 민요, 천연기념물이 주요목차로 편집된 시리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한국일보사의 '신한국의 여로'. 단행본으로는 '주말여행'(박준홍, 수문)을 비롯해 20여종이 현재 서점에 나와 있다.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도서는 외국여행서가 나라별로 혹은 도시별로 나뉜 것에 비해 산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이유야 유달리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도 있고, 여행은 흔히 "산 아니면 바다"라는 일반적인 통념 때문인 것 같다. 이들 산행 안내서는 산악관련서적을 꾸준히 출판해온 평화출판사와 수문출판사의 것들로 대부분이 채워진다. 전국 등산프로가이드협회장인 안경호 씨가 도별로 명산을 분류해 각 산에 대한 자신의 인상과 코스별 산행의 주의할 점 등을 일일이 밝힌 '한국 200 명산'(평화)과 '222 산행기'(김형수, 평화), 그리고 '전국 유명 100산 등산안내지도'처럼 컬러로 된 '등고선 채단식 산악지도집'도 있어 산행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요즘들어 이런 산행 안내도서의 아성을 깨고 있는 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자가용 이용 여행가이드 부쩍 늘어

자가용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서울근교와 지방의 도로를 설명한 책들이 그것으로, 지난 84년 '서울근교편'으로 시작해 '영동·영서·영남'(2편) '호남·제주'(3편) '서울근교 남쪽'(4편) '서울근교 북쪽'(5편)까지 나온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최동욱, 나남)가 대표적인 예. '관광을 겸한 오너드라이버의 안내서'란 부제가 붙은 '길따라 삼천리'(서림)의 경우, 시·군간 거리표·여행안내소·시외버스공용터미널 연락처 등을 실어 자가용 여행의 길잡이가 된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으로 인한 번거러움을 피해 자신의 차를 이용한 여행의 안내를 맡고 있는 책들은, 최근들어 더욱 수가 늘어나 '내 차 타고 하루여행'(차림) '즐거운 드라이브'(정우사) '도로여행'(무궁화) '오너를 위한 드라이브 코스'(청림) 등등 10여종이 넘는다.

또 신간으로 얼마전 선보인 대원사의 '한국 비경 시리즈'(10권 발간 예정)의 첫번째권인 '설악권,가볼 만한 곳 30'(최동욱)은 제목처럼 설악산 주변의 명소를 30곳으로 나눠 깔끔하게 편집한 점이 돋보이고, 샘터가 내놓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섬낚시터를 소개한 '바다로 섬으로'(표성홍)는 소설가의 여행안내서라 특색있다. 이렇게 수많은 여행안내서가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시각각 여행지의 사정이 변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여행안내서를 과신하다가 자칫 현지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최태원 기자